



## 투명 운영, 단합으로 병원 권익 신장!

글 · 김 철 수 ■ 대한병원협회 회장

저를 대한병원협회 제33대 회장으로 선출해주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총회에서 인품과 덕망이 훌륭한 후보가 계셨음에도 본인을 선택해주신 분들의 뜻을 받들어 병원계의 건설한 발전을 이룩하여 병원들이 한국의료의 중추로서 국민 건강지킴이의 소임을 다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 병원들은 규모나 운영주체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보장성 강화에 만 매몰되어 상급병실차액급여화 및 선택진료비 폐지문제까지 거론되는 등 회원병원, 특히 대학병원들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하면 외국병원진출로 국내 병원의 경쟁력제고가 급선무인 상황에서 실효성있는 경영활성화 대책은 가시화되지 않은 채 병원, 특히 대학병원을 옥죄는 정책만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병원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한국 의료의 중심이 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병원계를 구출해내 우리 병원들이 지향해야 할 바를 굳건히 지켜 나가려면 회원병원 모두가 하나되는 내부 결속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우리 앞에 헤쳐나가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 병원협회를 구심점으로 전체 회원병원의 마음을 하나로 한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병원 공동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협회 사무처 직원들은 보다 진취적이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회원병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및 회무추진 활동의 첨병으로서 각오를 새롭게 다져주기 바랍니다.

저는 제33대 대한병원협회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대학병원이 한국의료발전을 선도하고 더불어 중소병원도 발전해 나감으로써 병원계 모두 Win-Win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동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협회조직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정책과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협회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상근임원을 증원하여 기획·보험·수련 분야를 전담, 정책현안 대처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국립대병원·사립대의료원·중소병원·정신병원 등 각 직능별 단체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병협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 국회, 언론, 시민단체에 대한 홍보 및 유대 등 활동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홍보담당 부회장(위원장) 밑에 대정부·언론 활동을 위한 기획팀을 별도로 운영, 정책사안별로 병원 권익을 위해 최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 회계기관을 선정, 이곳에서 전반적인 회무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가 정기감사 외 수시·특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2007 국제병원연맹(IHF)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능력과 경험이 있는 대학병원장 중심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세계 병원인들의 제전인 2007 IHF 총회를 역대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국 1,600여 병원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법정단체로 우뚝설 수 있도록 활동해나가는데 뒷받침이 될 협회 자체회관 건립의 초석을 쌓겠습니다.

이같은 일들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회원병원 및 협회 임직원들이 혼연일체되어 일로매진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회원병원의 총의를 받들어 전력투구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병원의 권익이 신장되도록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원에 감사드리며 회원병원장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KHA**